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8호 [루게 제2582호]

주제 109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음력 1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무공무진한 자력갱생의 힘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주동적인 공격으로 현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전략을 제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공화국 각지에서 주체적합,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전진도상에 직면한 모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고있다.

주체적합, 내적동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력갱생의 힘을 의미한다.

자력갱생의 정신력만 있으면 뚫고나가지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다는 것이 이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억척불변의 진리이다.

부닥치는 만년시련을 과감히 뚫고 불리한 객관적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은 자력갱생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만능의 열쇠로 되고있는가를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최고기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력갱생은 기나긴 항일전쟁의 나날에 혁명군의 존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어로 되었다고 회고하시었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기대어 경제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추켜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고 우는소리를 하고있을 때 공화국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부강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

가 날아오르고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역사적위업을 달성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는가.

적대세력들이 수십년간 정치군사적압박과 경제체제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공화국은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자주와 정의의 한길을 굳힘없이 이어왔다.

자기 운명을 틀어쥐고 제힘으로 개척할 때 강자가 되고 민족의 존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살아 숨쉬는것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던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세상사람들을 놀래

우는 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될 수 있었다.

시련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고 발휘되어온 공화국의 주체적합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진막강한 위력으로 분출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속에서도 황홀한 새 거리가 일떠서고 새 병원들이 문을 열어 전설의 전역을 련이어 펼쳐가는 오늘

의 시대는 자력갱생의 위력이 높고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위상에 찬란의 목소리

를 아끼지 않고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장립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위대한 나라이며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나라이다.

조선의 훌륭한 건축물들은 이 나라 인민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것이다.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경제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민주광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조선인민의 모습은 국제사회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위대한 당의 향도 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인민에게 지지

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무진막강한 발전잠재력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수리아 바아스넨선봉대 위원장은 이렇게 피력하였다.

자립, 자력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품부화하신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자력갱생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쥔 조선인민은 승리의 신심에 넘쳐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자주

의 길을 따라 꿰뚫어 나가는 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체스고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제1부위원장

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 아래 조선인민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

을 굴복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오히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단결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조선에는 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라를 방문하는 과정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조선이야말로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고 자기 힘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 사회주의의 본보기, 성세이다.

본사기자

자주성이 강한 나라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청년전원들의 결의행진(2020년 1월)

조국소식

원산구두공장에서 새 학년도 학생용구두생산 결속

원산구두공장에서 새 학년도 학생용구두생산을 결속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고 이들은 선진후량의 원칙에서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는 질 좋은 구두를

생산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즐기며 벌어들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종합원동은 성과에 만족하지는 않는 속내에 공작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과 기술학습을 정상화하여 기대공

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제품의 질을 훨씬 개선하였다.

원산구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증산돌격운동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양시에서 적극 개발리용되는 태양빛발전체계

평양시에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자체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많은 단위에서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를 도입하여 더욱 보강되며 시적으로 그 단위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5배로 늘어났다.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는 국가전력망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우월한 전력발전체계이다.

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조건과 단위들의 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태양빛발전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정상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해당 단위들에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도입과 관련한 과학기술자료들을 보급하고 태양빛발전소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발전체계도입으로 더욱 보는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일반화하는 사업도 차고들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태양빛발전지제작소, 과학기술전당, 목란광명회사를 비롯한 많은 단위가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를 운영하면서 남는 전력을 국가전력망에 넣어주고있다.

류원신발공장, 대성산생물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상업망들에서 필요한 전력소요량과 태양빛발전지관의 규모 등 기술지표에 맞게 이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그 단위들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실리있는 부지절약형온실 - 평양시과외생용품공장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16일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경축모임에는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삼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모임에서 발언한 최수봉 제1부의장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항일의 총포성이 울려 퍼지는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열화같은 예국의 넋과 결사헌신의 정신을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실 원대한 리상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강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민족의 어머니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려는 원수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고 대정침공과속에서도 자주, 사회주의의 기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선반적극력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신 강령의 명장, 절세의 예국자이시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혁명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또 한분의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주체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제일락원이 조국땅우에 반드시 일떠서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선렬들이 물려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영연히 이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신념과 맹세가 담긴 편지들이 상영되었다.

본사기자

백두산에로의 랍사열풍 고조



최근 각계층 근로자들속에서 백두산에로의 랍사열풍이 더욱더 고조되고있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백절불굴의 정신과 기상, 숭고한 품모를 체현하

고있는 력사의 증언자이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단행하신 군마행군이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겨울철탐사행군에 참가한 답사

자수는 전국적으로 근 5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전국당선일군들과 혁명사적일군들, 청년학생들, 노동자들과 직맹일군들, 농근맹일군들,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의 답사행군

대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서의 겨울철탐사를 진행하였다.

그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로부터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 나 어린 청소년학생들에 이르

기까지 서로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백두산에 오르

고있다.

2월을 맞으면서 백두산 답사열풍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백두의 흰눈에 어려있는 성스러운 애국의 발자취

백두산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떠받치고 천하를 굽어보는 거인의 흰머리같다고 하여 백두산이라 부르고 조종의 산이라 하였다.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수천년, 사시장철 조종의 산을 변함없이 흰색으로 단장시켜주는 흰눈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백두산과 흰눈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겨울철이면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흰눈이지만 백두의 흰눈은 민족의 넋을 안고있고 항일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비껴여있어 겨레가 더욱 소중히 마음속에 안고 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백두의 흰눈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었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도 벌리시었으며 해방된 조국땅에서의 건국위업도 설계하시었다. 항일빨찌산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의 흰눈은 포근한 잠자리였고 때로는 식량이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백두산의 흰눈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새기신 생의 첫 자국을 간직하고있으며 민족의 대통운을 맞이하였던 잊지 못할 그날의 감격을 소중히 품어안고있는 력사의 증전자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땀수 없는 인연을 맺은 백두산의 흰눈이다. 흰눈은 이 땅위에 소리없이 내린다.

그 누가 알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독립의 큰뜻을 품으시고 고향만경대를 떠나실 때 그



걸음이 장차 조선을 해방시킬 항일빨찌산대장의 큰걸음인 줄을.
 조국땅의 자그마한 조약돌을 손에 꼭 감싸쥐신 그이께서 나라를 독립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실 때 그이께서 후날 조국을 해방시켜주실 절세의 예국자이심을 그때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조국해방을 위한 빨찌산 김대장의 첫걸음은 요란한 출정식이나 환영식도 없이 추려났은 조가집사람문앞에서 조부모님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조용히 새겨졌다. 흰눈은 땅위에 소리없이 내리지만 일단 눈보라가 되면 온갖 어지러운것들을 송두리채 날려버리고 은빛세계를 펼쳐놓는다. 백두의 눈보라가 바로 그러하다.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고 우롱하는 일제의 머지마순간 무서운 철수를 내리시고 이 땅에서 몰아내신 백두의 령장이시다.
 항일빨찌산 김대장이라는 빛나는 그 이름은 겨레의 가슴속에는 백두산이 낸 민족의 영웅을 맞이한 크나큰 공

지와 민족재생의 환희를 안겨주었지만 삼도왜적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리곤 하였다.
 돌이켜보면 내리는 흰눈처럼 조용하고 소박하게 시작되었지만 백두의 눈보라처럼 거세차고 즐기차게 민족재생의 새봄을 펼쳐준 위대한 수령님의 영웅적인 항일대전사였다.
 흰눈은 대지를 포근히 감싸안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늘처럼 내세우신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뜨겁고 인력으로 끝이 없는 넓은 품에

소중히 품어안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땅의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한생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생애의 머지마순간에조차 눈내리는 현지지도의 길에, 인민행렬차에 계시었다.
 흰눈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장군님에 대한 추억, 그래서인지 올해의 뜻깊은 광명성절에 평양을 비

롯한 많은 지역에서 하루종일 함박눈이 계속 내리어 그리움의 정을 더욱 불태워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 헌신의 철학인 《흰눈철학》으로 한평생을 불같이 사시었다. 자신을 강그리 불태우시며 이 땅의 빛이 되시고 열이 되시었다.
 인민은 장군님 찬눈길 걸지 마시라고 노래도 부르고, 안녕을 간절히 축원했건만 그이께서는 인민의 락원을 지키고 꽃피우시려 내리는

찬눈비, 불어오는 눈바람을 기꺼이 다 맞으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대지를 포근히 감싸안고 생명수를 주는 흰눈과도 같이 인민을 품어 안으시고 사랑과 정을 주신 숭고한 애민헌신의 한평생이었다.
 흰눈은 순결성과 단일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전체 인민이 걷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었던 백두산의 정신과 신념, 의지를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하게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게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항일의 전구들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백두산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눈보라사나운 백두산을 찾아가고있고 백두의 기상으로 오늘의 정면들파전에 한사람같이 밀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길은 조선민족을 위한 가장 정의롭고 승리에로 가는 길이라는 철대적인 믿음, 이 로상에서 한치라도 탈선해서도 안되고 오직 끝까지 가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백두산악처럼 굳건히 자리잡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민족의 성산을 소중히 감싸안고 더욱 숭엄하게 빛을 뿌려주는 백두의 흰눈.

그 흰눈에 성스러운 력사를 새기며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모두가 굳게 뭉쳐 계속 힘차게 앞으로만 나아가고있다.

오늘 공화국은 《번영》과 《발전》을 광고하는 적대세력들의 추파에 윈는 한번 팔지 않고 자력갱생이라는 번영의 보검으로 제재와 봉쇄를 무력화시키고있다. 평화 4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생늬를 움켜먹으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던 강인한 의지가 오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어지고 역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던 백철불굴의 공격정신이 오늘의 정면들파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기쁜 일의 있었음 때면

천갈래만갈래로 뻗은 인생길에는 때로 기쁜 일, 아쉬운 일도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생겨나는 경우는 아마 드물것이다.
 수십년세월이 흐른 듯 꿈에서도 그려 못본 문명의 별천지들이 황홀경을 펼칠 때면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는 향유의 기쁨에 앞서 끝없는 아쉬움이 샘솟아오른다.
 마치 홀려온 세월의 대명사이런듯싶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나라에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아쉬움 누를길 없으시어 때로는 환히 웃으시며, 때로는 조용히 눈곱적시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뜨겁게 되뇌이시는 심중의 토로.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인민들을 위한 재부가 나날이 늘어나는것을 놓고서도 왜서 그의 가슴속에는 바치신 로고보다, 느끼시는 창조적 회회보다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는 명물로 남아있는가를.
 지워지지 않는 명물, 이 한마디가 다 말해준다.
 누구보다 잘 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실 곳 그리도 많으시었다. 그 길에서 나라의 재부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한평생 고생이 란 고생은 다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아프게 갈마드시었다.
 인민을 위해 생의 전부를 내대신 장군님께 자신의 살몸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한번만이라도 보여드리고싶으신 간절한 마음 사무쳐올수록 인민을 위한 현 지지도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승리는 웅당 빛나는 법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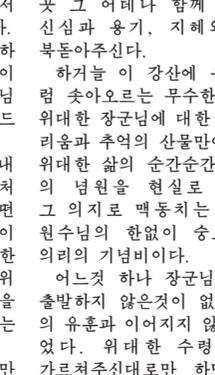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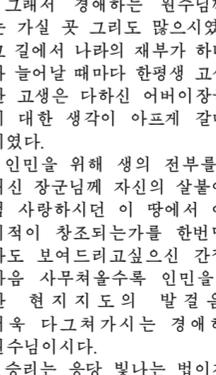
위대한 계승으로써 더욱 빛나고 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피눈물의 12월에서 오늘까지 흘려온 이 땅의 세월을 한해한해가 지나갈수록 높아지는 비약의 계단이었고 솟구치는 기적의 용암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한마디에 다 비껴있었다. 지난 10년간 것처럼 몰라보게 이 나라를 전변시킨 비중유의 창조력이 어디서 샘솟은 것인지.
 그의 초인간적인 정력과 분투의 열도가 어떤 소원에 시계를 두고있었는가를,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인간의 생물시간마저 자신의 혁명시간으로 바꾸어놓으신 그 피방울같은 한초한초에 어떤 열망이 끓고있었는가를 만만년만년에 특기할 사변들이, 수십년세월도 무색케 할 무수한 인민의 금방석들은 말없이 전해주고있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기뻐할 때나 어려울 때에도 나라와 인민의 전도를 놓고 위대한 장군님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고뇌와 심혈, 사색과 열정, 그 피라는 헌신의 날과 달들을 어찌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실로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으신 그 담대한 배짱, 캄캄한 시련의 암흑을 헤가르며 진군로를 열어나가신 그 의지의 힘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의 기둥이시며 힘의 원천이시며 앞길을 밝히는 등대이시었다. 예나 지금이나 경애하는 원수님께 힘을 주고 박동을 주시며 그이께서 가시는 곳 그 어디나 함께 가시면서 신심과 용기, 지혜와 열정을 북돋아주신다.

하저늘 이 강산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무수한 재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추억의 산물만이 아니다. 위대한 삶의 순간순간이 장군님의 넋원을 현실로 꽃피우실 그 의지로 맥동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의 기념비이다.
 어느것 하나 장군님의 뜻에서 출발하지 않은것이 없고 장군님의 유훈과 이어지지 않는것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라고 하시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또박또박 정리 기록한 그 수첩을 또 하나의 심장처럼 품고 오직 수령님들의 뜻대로만 기적의 세월을 펼쳐가시었다. 바로 그래서 이 땅에 드리운 시련은 다른 나라 같은 으런 열배만 무너졌을 최악의 역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한마디에 다 비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던 얼마나 기뻐하시라.
 이 말씀이 울리는 곳마다에서 세계는 또다시 목격하게 될것이다.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넋원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신 그 피방울같은 한초한초에 어떤 열망이 끓고있었는가를 만만년만년에 특기할 사변들이, 수십년세월도 무색케 할 무수한 인민의 금방석들은 말없이 전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러명거리

류경안과조합병원

양덕은전문회유양지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며

주체가 없는 사회 운동이란 있을 수 없듯이 사회 운동의 한 형태인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도 그 위업수행의 담당자인 주체가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전체 조선민족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제지배자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것만큼 민족성인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을 수 없게 결속되어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라고 밝혀주시었다. 오로지 하나의 조선민족을 생각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는 조국통일주체의 음악 작품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인들이 준비한 음악무용소품들을 지도하시며 위하여 몸소 평양대극장을 찾으셨다. 공연순서를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아노 협주곡 《조선은 하나다》가 왜 빠졌는가고 물으셨다. 작품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서 공연순서에 넣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번 들어보라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가 연주되게 되었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을 가로막아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이룩하고야말라라는 우리 겨레의 념원을 생동하게 형성한 피아노협주곡을 다 들

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 으기 흥분하신 어조로 아주 잘 하였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 하시었다. 가요 《조선은 하나다》의 선율에 기초하여 창작된 이 피아노협주곡은 반민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자랑떨쳐온 우리 민족은 하나이며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려는 겨레의 지향과 력사의 도도한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준다. 하여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는 공화국의 하늘가에 울려 퍼졌으며 온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주재61(1972)년 7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를 한 일군을 급히 부르시었다. 이 시기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령명을 안아오시려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셨다. 장군님께서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먼길에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새벽에 불려서 안됐다고 교신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아침공기가 아주 몸에 좋으니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면서 호수가의 숲속길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장군님께서 명주벌같은 안개발이 피어오르는 호수를 가리키시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호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것입니다. 해변에는 지도에도 없었던 호수입니다. 수령님을 떠나서는 오늘의 사회주의조국도,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위대한 미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교신하시었다. 그리시던 장군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수령님께서 년세가 더 높으시기 전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통일된 조국에서 전체 인민이 수령님을 모시고 단란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고 절절히 교신하시었다. 그의 교시는 일군의 가슴을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심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조국통일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다른 누가 대신해서 개척해주지 않는다. 위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문제에 개입하여 어부지리행언으려는 흉심만이 있다. 위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을 끝장내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통일을 안아오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 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통일을 가

얼음조각이 통일열망 담아



삼지연시에 펼쳐진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2020》의 황홀한 축전장에서 《조국통일》이라는 글발을 새긴 얼음조각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글자들이 가운데 파란색으로 형성한 조선지도와 에로부터 하나의 력사와 문화, 피결과 언어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돌로 갈라져 살수 없는 유기체이며 영원히 하나이라는것을 축전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웨치는것이다. 아이의 손목잡고 축전장을 찾은 한 녀성이 그앞에서 유심히 바라보고있다. 조국통일! 나라가 갈라져 75년이 되어오는 지금껏 우리 조선민족은 얼마나 이 말을

《나는 거어이 정열의 인간이 되련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리단이다!》 언극으로 민족을 빛내이고 그 길에 자기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름까지 고친 청년(그의 이름은 원래 리정훈이었다.), 그가 바로 공화국의 무대예술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리단선생이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에는 해방후 남조선에서 들어온 지식인들과 문예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분화와 민족경계를 발전시키고 보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38° 선을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리단선생도 그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조선이 통째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노예생활을 강요당하던 1918년 10월 8일 경기도 려주군(당시)에서 가난한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의 생활은 그야말로 가슴아픈 눈물로 얼룩지었다. 그의 아버지는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을 탄탄하며 일찌기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의 손에서 리단과 세명의 누이동생은 음식에서 힘들게 자랐다. 당장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생활난속에서도 리단은 자기의 가슴속에 언극배우가 꼭 되고싶은 욕망이 샘솟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천성이나 다름없었던 욕망은 그를 끝내 그 길로 사정없이 떠밀었다. 가정생활이 어려워 다섯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게 되자 리단은 다니던 중학교를 중퇴하고 동아일보사 물진기계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배우가 되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배우수업무대에서 부지런히 연기훈련을 하였다. 그 《무대》가 바로 당시 서술시 성복동 옛성터아래에

공화국의 품에 안겨

연극무대와 더불어 삶을 빛내이며

는데다가 열정까지 합쳐지니 그의 실력은 날을 따라 높아갔다. 그는 20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아랑》극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정말 연극배우란 말인가?) 너무 기뻐 낮토름 배우들의 손을 잡고 흔들며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소리쳤다. 극단의 단장은 그가 연기를 배 해볼수 있었는지 우려되어 력사극에 나오는 역할을 하나 해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입직시험인셈이었다. 연기시험문제는 그 언극에서 나오는 역인들의 첫 대사 《아병망로 아외오!》 하며 절들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알리는 대목이었다. 단장의 말이 떨어지자 이내 인상깊은 역할을 하는 그를 보며 연출가는 물론 배우들모두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아병망로》라고 불렀다. 그가 입직시험을 얼마나 잘 쳤는지 극단에서는 처음부터 주인공역을 맡기었다. 이때부터 꿈속에서도 그려

보던 그의 배우생활이 시작되었다. 리단은 불타는 열정을 다해 맡겨진 역인물형상을 훌륭히 수행하여 언제나 동료들을 놀래웠고 관중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은 매번 일제의 탄압으로 목살되었고 그때마다 리단의 가슴은 퍼명이 들곤 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새날의 희망이 비쳐들었다. 그것은 바로 해방이었다. 해방, 얼마나 환희로운가. 이젠 마음놓고 연극을 할수 있었구나! 리단은 커다란 기대와 포부를 안고 당시 서술조선에 출극단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번역극 《폭풍의 거리》(주역)와 《웨쳐라 대지》(대학생), 언극 《항연》(참봉역)과 《3.1운동》(주인공역) 등에 출연하였다. 하지만 일제를 대신하여 거역된 위세가 살판치는 남조선땅에서 진정한 예술은 한갓 춤봉에 지나지 않았다. 리단의 가슴속에는 또다시 두루운 구름장이 비껴들기 시작하였다. (아, 나의 희망, 나의 생은 이렇게 지밧히고단단 말인가?) 너무도 분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그에게 봄날의 아침해살마냥 따사로운 빛이 흘러들었으니 그것은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이었다. 가자,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야말로 나의 꿈이 실현될수 있는 리상향이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린시

절 뉘넌고 고향마을과 배우의 꿈을 자애로운 옛성터의 소나무를 뒤에 남기고, 눈물로 얼룩을 지시는 어머니의 바래움속에 38° 선을 넘어섰다. 그때가 바로 1946년이였다. 그가 꿈에서 그려보던 리상향은 쉽게 믿을수 없는 현실로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아래 작가, 예술인들이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새 조선건설의 용사, 민주주의의 기수로, 인민대중의 선도자로 되고있었다. 리단은 놀뛰는 격정속에 증상에출몰작단(당시)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언극 《뚝돌이근부》의 주인공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이어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언극 《퇴성》에도 출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선건설의 바쁘신속에서도 이 언극을 친히 보아주시었다. 그때 언극에서 혁명가를 자처하던 변절자역을 맡아 수행하였던 리단은 하루라도 더 빨리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한 후회로 가슴을 치었다. 그는 언극 《심청전》창조의 날에 고전문학작품을 다루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를 전달받으면서 그의 비범한 예지와 공화국의 민족예술의 창창한 앞날에 대하여 다시금 뿌듯이 느끼게 되었다. 그 후 리단은 시립극장에서 공연된 언극 《리순신장군》에서 리순신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극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고 리



리 단 선 생

리단은 크게 한 일도 없는데 자기에게 이렇듯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 감사의 눈물만 그냥 흘리었다. 이렇게 평범한 언극배우에 불과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속에 많은 예술영화에도 출연하였으며 창작단의 연출가로 성장하였다. 전투의 승리가 사령관의령군에 달려있었고 마찬가지로 연극의 운명은 연출가의 지도능력에 달려있다. 그는 연출가로서의 완벽한 자질을 소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언극혁명의 불길속에서 가슴



조선예술영화 《인민교원》에 출연한 리단선생

《통합》의 간판만 단 《도로새누리당》

남조선에서 4월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이한 명칭을 단 정당들이 출현하는 등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이 서로 결탁하여 창당대회를 열고 그 무슨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을 내놨다.

이미 력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퇴물들이 당간판에 《미래》를 단것자체가 역겨운노릇이지만 다리부러진 노루 한복에 모이는 격으로 인간오작품들이 주제넘게 당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그 무엇을 할것처럼 늘어대고있는 꼬락서니는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기본 세력이라는 이전의 《자한당》과 《새로운보수당》 패거리들로 말하면 회세의 악

녀인 박근혜를 신주모시듯 하면서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은 인간오작품들이 권력욕만 추구하는 사이비정객들이다.

《미래통합당》의 조작은 권력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가리지 않는 시정배부리, 아무런 신조도 없이 리해관계에 따라 여겨지기에 옮겨대는 전형적인 정치척새들이 펼쳐놓은 판데극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보수패거리들은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서로 물고뜯는 개싸움질일 일삼는 추악한 시정배, 인간척새기들이다.

다같이 보수라는 색은 물에 뿌리를 담고있지만 권력을 놓고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추악한 싸움질만 일삼던자들이 바로 《자한당》과 《새로운보수당》 것들이었다.

상대방을 《낡은 보수》라고 깎아내리고 저들이 《보수를 대표》한다고 고아대면

서 서로가 서로를 마구 헐뜯고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앙양불락하면서 개싸움질에 눈이 멀게 돌아치던 보수패거리들이 언제 그랬던가싶게 《통합》을 이룬다, 신당을 내온다 하며 소란을 피운것은 그 어떤 정권대도, 화해도 아니다.

단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굴뚝같은 권력욕을 채우면서 보수에 의한 재집권야망을 실현하자는 데 있었다.

같은 못된짓을 다하여 민심의 버림을 받고있는 보수패거리들이 재집권을 위한 최후발악으로 마구잡이식의 세력권확장에 나선것이다.

이것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초물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저들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세력들의 단말마적주책이다.

오물이나 모이면 더 큰 오물이 뿜는다.

반역과 구애에 절은 더러운 정치간상배들이 그 무슨

《범보수》를 운운하며 모여들었으니 그들의 체질에서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 체제를 그대로 인식하여 당지도부를 구성한 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여야당들은 물론 사회 각계층은 《미래통합당》에 대하여 《총선용리합집산당》, 《돌고돌아 도로새누리당》, 《과거에 회귀하는 회행》, 《탄핵부정세력과 보수정치량인들의 립시거처지》라고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것이다.

최광희

입을 권력을 맞추었던 만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한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등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모여들어 얼렁뚱땅 만들어낸 기형아정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새로운보수당》 세력들이 받는 수모와 멸시가 가중하기 그지없다.

이러한데 저러한데 당 대 당 사이의 합당의 미명하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겠다고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는데 정작 해놓은 보나 창당 다음날 마련된 의원총회라는데서 이전 《자한당》 세력들은 남들 보란듯이 배를 내밀고 《너는 내 부속물에 불과해》라는 식으로 《새로운보수당》을 흡수한것처럼 늘어대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에 들어오면서 그대로 저들의 지지기반으로 자처하는 부산지역에서는 《공천》을 받을수 있다는 미련이 있었건만 이전 《미래를 향한 전진 4.0》 대표

가 고추먹은 고양이상을 해가지고 《그것은 내 떡이야》 하며 사나운 발톱을 들이대고있으니 《새로운보수당》 세력으로서도 단사가 아닐수 없다고 한다.

이전 《새로운보수당》 대표가 합당제안과 《국회》의원선거출마포기까지 하며 구결한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의 《미래통합당》에서의 고용을 《자한당》 세력들은 《박근혜탄핵 때 당에 침을 뱉고 나간 사람들》이라며 동냥은 거지때 바라보는 식으로 대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의 재집권을 위해 《보수통합》을 해야 한다는 《자한당》의 강언리설에 《새로운보수당》이 속속까지 다 내주는 창녀처럼 모든것을 포기하고 《자한당》과 결합하였으나 그로 하여 차레지고있는것은 현실이 보여주듯이 될 주고 뺨맞는 신세이다.

이전 《새로운보수당》 세력내에서 《모두가 도로새누리당이 라 비판하지만 도로새누리당보

다 못한 상태》라고 볼부는 소리가 나오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얻어보겠다고 《새로운보수당》 세력들이 《자한당》 세력들과 입을 맞췄건만 그것은 그대로 《작사량》이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 앞에서는 그것이 사소한것일라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전 《자한당》 세력들이 살판치는 오합지졸무리인 《미래통합당》 안에서 《새로운보수당》 세력들이 권력의 뺨부스레기라도 얻어보겠다는것은 그야말로 맹비아 쪼이는 사막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격이다.

그런다고 이전 《새로운보수당》 세력들이 권력을 포기하는것은 아니다.

남조선의 각계가 평하듯이 권력야욕의 편뚱만 꾸는 이전 《자한당》과 《새로운보수당》 세력들의 싸움질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청년들이 적폐청산투쟁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주장

남조선인민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청년연대가 15일 민주로총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청년들이

적폐청산투쟁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청년들이 강도적인 미국에 맞

서 자주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

을 비롯하여 정세를 격화시키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고 미군이 없는 조선반도를 만드는 길이 평화로 실

현하는 길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단체는 외세에 편승하는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청년학생단체들과 힘을 합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정치생동이》의 1년 행적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대표 황교안이 정치무대에 나선지 1년을 가까이하고 있다. 2019년 《자한당》 대표로 나서서부터이다. 아이로 치면 첫돌을 마추하는 셈인데 각계가 보내는 눈길은 《축복》은 고사하고 싸늘하기만 하다.

《박근혜도 리명박도 다 감옥에 갔는데 황교안이 아직도 여기에서 대표라니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박근혜수하다운 어디 갈데 없는 정치기형아》...

황교안의 정치 1년에 대한 민심의 평가이다.

1년전 그가 당대표의 감투를 쓸 때 황교안에서는 《공발에서 풍나오지 밀이 나오겠느냐》 하는 야유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민심의 눈은 언제나 정확하다.

황교안의 지난 1년행적은 그가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것이라는 민심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남조선에서 황교안이 《자한당》 대표로 된것은 그야말로 비극이다. 《자한당》내에서 황교안을 당대표로 내세운것은 탄핵당한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친박세력들이다.

지난해 1월 《자한당》내에 자파세력이 없는 황교안이 대표선거 한달을 앞두고 출마를 하게 된데는 박근혜 밑에서 《총리》를 한 리력과 박근혜탄핵을 거부한 리유로 친박세력의 지지를 얻을수 있다는 약삭바른 라산이 있었기때문이다.

남조선의 정세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이 평한것처럼 박근

혜탄핵이후 불만만 바퀴마냥 행방없고 갈팡질팡하던 친박계에게는 그대대로 비박계가 당대표로 되는 경우 저들이 다 몰살될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황교안을 내세워야 살수 있다는 희망의 끈이 있었다. 이런 리해관계로 황교안과 친박계가 배음이 맞아 떨어졌고 결국 친박계의 입김으로 황교안은 당대표가 될수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있다.

이렇게 황교안은 친박계라는 《조선원》의 방조속에 《자한당》의 대표라는 정치기형아로 출생하였다. 그 한 당대표수락연설과 다음날의 당대회위원회에서의 비린 악청 또한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 순간부터 좌파정권과 치렬한 전투를 벌리겠다》,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물어뜯는 기질이 박근혜를 넘어 《박근혜의 남자》, 《박근혜환관》으로 묘사된 황교안다운 너두리였다.

황교안이 정치계에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란 자기를 당대표로 《출생》시킨 친박계들에게 대한 《보은》으로 그들을 당내의 주요요직에 올려놓고 비박계는 《기저귀》나 빨고 방청소나 하는것과 같은 뒤겨들일이나 하는 약삭바른 라산이 있는 《자한당》의 비박계에서는 《박근혜탄핵이후

지리멸렬된것은 놀라게도 비박군에과였다》,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의 예고를 보는것 같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왔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민심이 심판한 《탄핵세력》이 내세운 황교안이 무엇을 할것인지는 불보듯 자명한것이다.

무릇 아이들이란 부모들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을 받는다.

마관가지로 《정치생동이》인 황교안 역시 자기에게서 돌봐주는 《보모》(친박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었지 떨어져서 청소질이나 하는 비박계의 말은 들은척도 안했다.

황교안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보모》들의 꼭두각사가 되어 처음으로 한것이 당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적폐저지위원회,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등을 내오는데도 친박계의 의사를 대변한것은 이에 대한 단적인 실례이다.

이렇게 정치기형아로서 첫발을 댄 황교안이 지난 1년간 한것이란 민심의 요구에 정면도전하여 온갖 악행만을 저지른것이다.

민심이 《선거법》제도 개선과 사법, 검찰에 대한 개혁을 완강히 반대해나선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한당》은 2019년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민심의 요구로 정계에서 추진중이던 주요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막기 위해 《강의투쟁》을 벌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몸싸움질로 만들었다.

미혹한 품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했거늘 황교안은 여기서 교훈

을 찾을 대신 더욱더 미혹하게만 행동하였다.

《국민의 60%가 강의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박계가 말했건만 권력야욕이라는 현존중에 사로잡힌 황교안에게 그것은 마이동풍이었다.

《경제집집회》, 《금전집회》, 《폭력집회》, 《탄장관집회》 등 민심의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태풍피해로 제난을 당한 사람들이 정치계에 도움을 요청해도 분체만체하며 황교안이 《강의투쟁》으로 날라 황교안이 전면에 나서서 《민생대장정》늘음까지 벌렸지만 차레지것이란 광주는 물론 부산과 대구에서까지 물레, 오물벼락을 맞고 시민들의 저주와 규탄만을 초래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황교안은 신형코로나비루스사태로 남조선사람이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강건너 불보듯 대하며 《좌파정권 라도》, 《국회의 60%가 강의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박계가 말했건만 권력야욕이라는 현존중에 사로잡힌 황교안에게 그것은 마이동풍이었다.

민생은 안중에 없이 오직 자기의 권력야욕만 채우면 된다는 《정치생동이》 황교안이 당대표직을 차지한 후 앞을자리, 설자리를 가리지 못해 출창 민심의 비난도마우에 오른것도 또한 불만하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보충선거때 《보모》가 시키는대로 《자한당》상징색인 새빨간색의 옷을 차려 입고 추경경기장안에 들어가 관객들앞에서 해피하게 놀아대다가 추경협회비난과 《공정선거법》위반논란을 일으켰고 불교행사에서는 그리스도교신자로 자처하며 불교

례법을 지키지 않아 땅신만당하였으며 서민홍배를 퍼우며 도로청소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도로교통법》위반에 걸려드는 등 《성숙하지 못한 정치해태기》로 조롱받았다.

아들은 실력이 없었지만 대기업에 취직하였다고 하면서 능력이 모자라는 청년들도 희망을 가지라고 꿰치고 《자한당》 녀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녀성당원행사에서 녀성들이 변태적인 추태를 부리며 춤을 춘데 대해서는 《오늘 한 공연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더 연습하여 멋진 공연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떠벌려 녀성들을 모욕한것이 바로 황교안이다.

황교안이 제 주제 개 주제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인명철회를 요구하는 사발놀음을 벌려 《병역을 기피한 황교안이 이왕 머리깎은김에 군인대선언이라도 해라》,

《불교와 불교인들을 모독하는 행위》,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정치쇼》라는 야유와 조롱도 받은것은 알려진 일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온 남조선인민들이 일본상품불매운동으로 들고일어났을 때에는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친일을 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꾀변들을 줄개들을 시켜 꿰치게 하여 친일매국노의 《영예》까지 받은 황교안이다.

미물도 한뼘쯤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황교안은 하나에서 열, 백까지 온갖 못된짓만 해대었다.

《교묘한 밤에 래질하며 울며 보채 온 동태를 들볶는 아이》가 되어 어느 하루도 남들이 편하지 못하게 분주함을 퍼워내는 황교안이야말로 갈데 없는 정치팔사둥이, 정치기형아이다.

《정치생동이》 황교안을 하루빨리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여 한다는것이 황교안의 《정치생동 돌잔치》에 남조선인민들이 보내는 《선물》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있는 황교안



또다시 《안보위기》소동에 매달리는 역적일당

보도에 의하면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이 얼마전 《국회》의원선거에서 반공화국대결광대국을 벌려놓았다.

이날 역도는 《천안》호침물사건이 《북의 도발》에 의한것이라스니, 《젊은 청년들의 송고한 회생을 잊어선 안된다》느니 뭐니 황실수설하면서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력설하였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물론 합동조사에 직접 참가하였던 성원들까지도 《북에 의한 《천안》호침물사건을 공화국과 한사코 련결시키며 그 누구의 《도발》라령을 늘어놓는것은 어불성설이다.

황교안역적일당의 반공화국대결광대국은 남조선사회

에 《안보위기》소동을 일으켜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 술책의 일환이다.

선거때마다 《안보위기》소동으로 보수지지층을 집결시키고 민주세력을 《안보부능》세력, 《중북》세력으로 매도하는것은 보수역적일당의 상투적수법으로서 남조선 각계는 그 추악한 정체를 이미 꿰뚫어본지 오래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보수패당의 《안보위기》소동에 대해 《의도적인 부품물이》, 《안보장사》, 《위기탈출용으로 남북분단상황용》 등으로 조소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악용해보려는 《안보위기》소동은 황교안일당의 반역적본색만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사기자

《선혈로 물든 민비의 시체에는 석유가 뿌려지고 불이 달랐다. 순식간에 시체는 화염에 싸여 이상한 냄새를 풍기었으며 참으로 귀곡추추(귀신도 서글프게 운다는 뜻)하였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25년전인 1895년(을미년) 10월 8일에 있는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한 일본인이 후날 자기의 수기에 남긴 고백이다.

력사에 기록된것처럼 바로 이날 날강도 일본은 총칼을 빼들고 조선봉건국가의 황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학살함으로써 우리민족의 력사에 씻을수 없는 또 하나의 죄악을 저질렀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청나라세력을 밀어내고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할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일본이 조선반도에 대한 저들의 지배기도를 실현하는데 방패로 된다고 지목한 인물이 명성황후였다.

조선봉건정부의 국정을 틀어쥐고있던 명성황후는 짜리 로씨야에 의거하여 일본을 견제해보려고 하였다.

이에 당황망조한 일본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명성황후를 회유해보려고 책동하였거

받은 악명높은 미우라공사의 주관하에 명성황후를 살해하기 위한 흉계가 꾸며졌다.

미우라가 《명성황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조선)에서의 우리의 세력은 몇

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간악한 일본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명성황후를 아예 제거할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 조칙의 일환으로 일본은 악명높은 미우라를 조선주재 공사로 파견하여 명성황후살해음모를 추진시키게 하였다.

1895년 10월 3일 서울주재 일본공사관 비밀회의실에서 일본정부의 지령을

이날 경복궁의 광화문으로 달려든 일본살인귀들은 황궁을 지키고있던 시위연대장들을 사살하였으니 이미 준비했던 사다리로 담장을 넘어 성문을 열어제끼고 건청궁을 포위하였다.

일본살인마들은 황후를 찾아내기 위해 침실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황후의 얼굴을 알지 못하였던 살인악당들은 궁녀들이 있는 방문들을 닦치는데로 짓부시고 들어갔으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그들을 따라잡아 머리채를 잡아끌고 대청마루에 끌어내다가 살해하였다.

1895년 10월 8일 드디어 미우라의 총지휘밑에 피비린 명성황후살해국의 막이 올랐다.

살인장대들에 의해 명성황후도 끝내는 많은 궁녀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졌다.

살인귀들의 죄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본장대무리들은 칼에 맞은 명성황후를 제확인한 후 숨이 채 꺼지지 않은 그를 이불에 둘둘 말아 미리 준비하여놓은 장작더미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리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다 라버린 그의 유골마저 못속에 집어던지었다.

일미사변조작의 원흉인 일본공사 미우라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것으로써 조선은 드디어 일본의 것이로 되었다》라고 뇌거렸다.

주권국가의 상징으로 가장 신성시되고있는 황교안에서 그것도 황후의 침실에까지 뛰어들어 당시 국가권력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명성황후를 무참히 학살한 일본살인귀들의 만행은 력사에 보기 드문 불붙무도한 반민륵적죄행이었으며 철두철미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 투대형반국가적범죄였다.

야수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이 체질화된 일본은 명성황후살해사건후 허위뉴스와 군사적강박으로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근 반세기 동안 류레없는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 죽음을 다 쫓아냈다.

일미사변이 일어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는 지금도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중요와 원한의 피가 더욱 세차게 끓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침략계획의 산물—을미사변

자력갱생을 변명의 보검으로 들머지고

자력으로 안아온 대경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재철생산

세 세기에 들어와 공화국 인민들은 자력갱생을 비약의 원동력으로 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의 창조본래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주재철의 붉은 쇠물에는 주재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재철을 생산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시고 금속공장들을 찾고 또 찾으며 주재철생산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온갖 실험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이 때까지는 새로운 주재철생산체계를 확립을 위해 애쓰고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을 찾으시어 착상이 아주 좋다고, 자신께서는 생손을 들어 지지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조차 우리 식의 제철법성공을 반신반의할 때 황철의 목표가 명백하다고, 황철

이 승리의 직선주조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하시며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을 산소열법에 의한 주재철생산의 공업화실현으로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주재98(2009)년 2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비폭스제철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폭스제철법을 받아들이는것은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시었다. 그리고서 우리 나라는 폭스탄이 나는것이 없기때문에 주재철생산을 발전시키고 비폭스제철법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이 길만이 우리의 금속공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하시었다.

그후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끝끝내 주재철생산체계를 완성하는 기적을 안아왔다. 주재철생산체계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듬해 12월 또다시 이 기업소를 찾아 하시었다. 김책의 로동계급이 CNC화가 실현된 주재철용 광로에서 쇠물을 뽑는것을 보기 위하여 왔다고 하신 것이께서는 주재철생산체계와 관련한 다매체전집들을 보여주시고나서 우리의 연료와 원료로 선철을 생산하는 우리 식의 주재철생산체계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주재철생산체계의 완성! 이것은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실천력으로 금속공업의 주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기적, 온 나라의 대경사였다. 김책에서뿐아니라 성강과 황철에서도 주재철이 쏟아져나오고 강선과 황철에서 100초고전력전기로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서는 사면들이 려이어 일어났다. 2010년 2월에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비날론 섬유가 쏟아져나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였다. 비날론이 생산된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신것은 주재99(2010)년 2월의 어느 날이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등으로 하여 경제적인관을 겪고 있던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훌륭하게 변모되어있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2.8 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비날론생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비료생산

STEM교육방식을 적용한 새 교수방법 창조

인재와 과학기술이 국가의 전략적자원, 무기로 되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실천형인재들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STEM(STEM)교육이 주목을 끌고있다. STEM교육은 한마디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같이 국가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들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여러 학과의 교수활동에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그것을 현실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창조적능력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개발창조형의 인재로 키우는 교육을 말한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및 기능전수를 위주로 하던 전통적인 교육과 달리 STEM교육은 학생들에게 현실에서 부닥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탐구 및 실천활동을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능력과 다시말하여 종합적인 과학적소양을 키워주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TEM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재경쟁, 과학기술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대부분의 발명품과 혁신들이 그 개발과정에 과학, 공학, 기술, 수학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로부터 제기되었다. STEM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여러 학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종합교육, 지식을 풍부한 생활속의 여러 가지 정황들과 유기적으로 결합

시켜 가르치는 일종의 정황교육, 문제해결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지식도 알도록 하게 하는 체험식, 연구식교육이라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특히 STEM교육의 핵심으로 되는 학생들의 연구 및 설계활동은 과학, 수학, 기술, 공학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된다. 지금 공화국의 고급중학교들에서는 개발창조형인재육성에서 주목되고있는 STEM교육방식을 적용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동평양제1중학교에서 STEM교육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능력과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방법을 창조하였다. 《생물질에 의한 전기생산》교수방법을 실례로 들수 있다. 학생들은 《생물질에 의한 전기생산》교수방법을 통하여 도마나 참외 등으로부터 전기를 도출할수 있다는것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생물질을 리용하여 화학전지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여러 학과의 기초과학지식들을 깊이있게 인식하고있다. 자연과학의 기초원리들이 응용된 과학상식과 실험을 폭넓게 파악한 학생들은 농작물도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로 확장하여 분석과정을 심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고있다. 또한 과학적지식을 결합한 정교보치능력과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실천활동을 진행해나

는 협동능력, 실험에 대한 자기의 견해작성과 발표를 통한 외국어능력과 함께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발표능력, 정보전달능력도 소유하고있다. 이과 학교의 김미성학생은 수업을 통하여 지난 시기에 배웠던 전기생산방식, 화학전지의 원리, 수학적모형화, 3차원설계프로그램리용기술 등 다방면적인 지식을 더 잘 다질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혜경학생도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방안작성능력, 최상설계능력, 지식의 종합체계화능력 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생물질에 의한 전기생산》교수방법을 창조한 강철민강좌장은 교수과정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착상, 설계, 실험, 분석, 종합, 발표과정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여러 분야의 종합적지식 및 실천활용능력과 자립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충분한 표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우월성이 확충된 새 교수방법을 더욱 확대하여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다른 고급중학교들에서도 STEM교육방식을 적용한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그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을 풍부하고 폭넓은 종합지식을 체득한 개발창조형의 인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절

원로직장으로부터 비날론 섬유가 나오기까지의 수많은 생산공정들을 빠짐없이 료해하시고나서 이번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는 개건한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것은 개건이라고 불수 없다고,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과시한 새로운 원자탄을 쏘았이나 같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로부터 이틀후 또다시 이 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폭도처럼 쏟아져나오는 비날론섬유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그것을 높이 드시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승리라고 하시었다. 주재철과 비날론이 아니라 주재비료도 폭도처럼 쏟아져 온 나라에 경사를 더해 주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가스화대상공사가 완공되어 비료생산을 시작한다는 2010년 4월말이었다. 그해 6월 이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날론대경사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연탄가스화공정을 건설하여 주재비료가 팡팡 나오게 되었으니 남흥의 로동계급이 온 나라에 또 하나의 대경사를 안아왔다고 대단히 만족하시었다. 주재철과 주재비료, 주재비료,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자력갱생을 원동력으로 하여 끊임없는 비약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이 땅의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수 있었고 공화국은 기적이 많이 생겨나는 나라로 될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준경

채간동이 처녀도안가들



최향미, 김류경도안가들 (왼쪽에서부터)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들을 많이 창작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젊고 실력있는 창작가들이 많다. 그중에는 기발하고 독특한 수법으로 명도안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최향미, 김류경 처녀도안가들도 있다.

지난해말 양덕은전문화후양지 중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후식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양덕은전문화후양지의 여러곳을 돌아보던 참관자들은 하나의 알림판 앞에서 발견음을 쉽게 매지 못하였다. 《석랑은천》! 민족적양상과 현대미가 결합되고 양덕은천지구의 특성이 살아나는 독특한 글씨체, 획의 끝을 비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서체의 높이와 너비를 비례하게 하여 아담하면서도 따뜻한 정서를 안겨주는 글씨체는 불수록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조형화된 글씨체를 산업미술도안에 창작도입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새 세대 창작자가 바로 20대의 꽃나이 처녀인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최향미도안가이다.

그녀 평양정보기술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이곳 창작사에 들어온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도안창작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그와 관련한 책들을 탐독하고 실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도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 그는 자기의 첫 창작품인 칠색송어훈제상표도안을 훌륭하게 창작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그의 특기는 비반복적이고 특색있는 도안을 착상하여 내놓는것이다. 특히 그는 도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글씨체를 독특하게 형성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녀 양덕은전문화후양지 야외온천장알림판의 《석랑은천》 글씨체를 형상화할 때 기성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탐구를 거듭하였다. 하여 그는 시에가 붓으로 글씨체를 쓰듯이 컴퓨터에서 자기가 직접 글씨체를 한획한획 써가면서 양덕은천문화후양지의 환경과 어울리는 독특한 글씨체를 형성해냈다.

이렇게 형성된 《석랑은천》 글씨체는 간판도안창작에서 독특하고 조형적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것으로 평가되었다. 네 글자로 유명한 최향미도안가가 《단발사격의 명수》라면 이곳 창작사의 김류경도안가는 《련발사격의 명수》에 비유할수 있다. 어떤 주제의 산업미술도안든지 다재다능하고 불타는 창작열을 지닌 그의 손이 가닿기만 하면 어느 것이나 명도안으로 완성되곤 한다. 그가 창작한 삼지연시에 새로 일떠선 봉사망들의 외부와 내부광고도안의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인민의 리

상향, 산간도시의 특성이 살아나게 조형예술적으로 잘 형성함으로써 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는 양덕은전문화후양지의 봉사망들에 전시화장품광고도안, 의상광고도안, 가방광고도안, 신발광고도안, 의약품광고도안들과 양덕은천로양지관리소 마크도안을 창작할 때에도 제품의 용도에 맞으면서도 미적가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그리고 온천물과 나무잎을 배합하여 특색있게 형상함으로써 양덕군에 일떠서는 종합적인 건강치료봉사기지의 명모가 뚜렷이 살아나게 하였다. 이밖에도 락공상표도안, 식료품상표도안, 각도조선옷전시회상표도안, 가정용품광고도안, 련명거리봉사망간판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도안들을 민족적특색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창작하여 내놓았다. 자기들의 창작품 하나하나가 그대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설계도가 되게 할 열의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평평한 젊은 실력자들이 많아 공화국의 산업미술의 미래는 밝다.

본사기자 홍범식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고있다.

이과침략전쟁에 참가하였던 서방의 한 군인은 어느 한 토론회에 참가하여 자기의 살륙행위에 대해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와 《나》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이는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 전쟁은 참으로 재미있는 놀음이다. 대단히 즐겁고 유쾌한 놀음이다. 나는 총포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좋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다.

그가 총포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좋고 말하자 수백명의 토론회 참가자들중 대부분이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한다.

극악한 살인마의 망발에 경악과 분노를 표시할 대신 오히려 잔인하게 행동하라고 부추기듯이 박수갈채를 보낸 그 나라 청중의 반응을 통해서도 인간중요가 만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진면모를 그대로 엿볼수 있다. 개인주의적인생관에 기초한 자본

주의사회에서는 저 하나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반목질시하고 죽일대기를 하는 살인사건과 각종 범죄가 끊길새없이 이어지고있어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30대청년이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라는 리유

《우리》와 《나》! 이 말속에 비껴있는 편이 두 현실은 서로 두고 이만더 화북한대 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본주의제도야말로 흉내낼수 없는 진정한 인간사랑의 화원이라는것을 응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자기 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개인의 리익과 탐욕만을 최 하은



강선의 《지녀어머니》

위생방역사업의 중요성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생했을 때부터 많은 시일이 지났지만 그 병적 증상과 전파경로, 전파속도는 나날이 증대되어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세계적인 범위에서 전염병과 방역대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와 사망자수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중대조직에 따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하여 위생방역체계가 신속히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되고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로부터 지역별로 강력한 비상방역역량이 편성

되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전염병의 전파가 갈수록 국제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류입될 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인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격리기간을 연장하고 엄격히 실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화국령 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완전히 차단봉쇄되고 국경연선과 국경통과지점들에서 검병검진과 검사점역사업이 보다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경을 끼고있고 함이 있는 지역들에서 위생방역사업에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6)

세계력기선수권보유자 박정주

4.25체육단 력기선수인 박정주는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진행된 여러 국제력기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쳤다.

박정주선수는 지난해 9월 타이에서 진행된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훌륭한 경기모습을 펼쳐보였다. 17개 나라에서 온 20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남자 67kg급기에 출전한 그는 추격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178kg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클래 성공시켰다. 이렇게 되어 그는 추격올리기에서 187kg을 들어올린 중국선수보다 1kg을 더 들어올려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력기최강자가 될 야심만만한 목표를 내세우고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우리 선조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는 이것을 아명이라고 하였으며 이름을 짓는 것을 가문의 큰일로 여기었다.

이름이 한 글자인 경우엔 번이나 받침의 돌림자를 썼다. 이름짓기에서 돌림자를 먼 친척까지 모두 쓰게 하기 위하여 흔히 죽보에 미

원하여 장수, 복동, 바우, 역쇠 등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 호는 그의 생활과 인연이 깊은 고장이나 그와 관련한 고사, 사설, 자기의 정신수양, 희망의 글자를 따서 지었다.

우리 민족의 이름짓는 풍습

리 정해농기도 하였다. 이름짓는 풍습에서 항렬을 나타내는 돌림자를 남자에게만 썼고 여자들의 이름에는 없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 출생한 해와 난 달을 반영하여 이름을 짓기도 하였다. 어릴 때에는 아명이 있었고 소년시절이 끝나면 관례를 치르고 본명을 지어불렀다.

공팔보호와 더운물에 발 담그는 시간

더운물에 발을 담그면 건강에 리롭다는데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있다. 하지만 어느때 담그는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다르다는데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

진시키기때문이다. 또한 온종일 긴장되어있던 신경이 풀리고 부하를 받은 공팔도 충분한 휴식을 하기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들어 가장 큰 공팔보호효과를 볼수 있다. 더운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너무 뜨거워도 나쁘며 40℃가 맞춘다.

사화

누구의 잘못이냐

글 라원섭, 그림 채대성

옛날 어떤 두메에 순박한 농군 한사람이 살고있었다. 얼마전에 모친상을 당한 그 농군은 청명을 며칠 앞둔 어느날 모친 산소를 돌아보러 갔을 때였다.

원망스러웠는데 이 무슨 당치 않은 처사란 말인가. 한 사나이가 얼굴을 붉히며 《감히 여쭙기는 황송하오나 바람이야 어찌 저희들의 탓이 오리라?》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돌아 이웃마을에 사는 한 부자의 귀에까지 가닿았다. 이자는 하도 린색하여 공팔라면 비상이라도 삼길 위인이었다.



회들의 비위를 어떻게 맞추겠느냐. 그러니 동풍을 보낼가, 서풍을 보낼가 망설이다가 마주쳐서 돌개바람이 될 수밖에... 이레도 아직 너희들이 저지른 일을 모르겠느냐?

그날 저녁에 갖장사가 와서 부자의 머리를 재어갔다. 멋도 모르는 부자는 《옳지, 새 갓을 마르느라고 머리를 재나부다.》 하고 혼자 기뻐하였다.

그날 저녁에 갖장사가 와서 부자의 머리를 재어갔다. 멋도 모르는 부자는 《옳지, 새 갓을 마르느라고 머리를 재나부다.》 하고 혼자 기뻐하였다.

역사인물

정지윤(정수동)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시인인 정지윤(1808-1858)은 평민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봉건적 신분제도의 불공평성에 불만을 품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량반을 비난하는 많은 일화들을 남겼다.

그의 시들을 모아 시집 《하원시초》를 간행하였는데 여기에 약 120여편의 시가 들어있다.

한 명 씩

감영의 병졸 한명이 친구의 집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오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앞서가는 병장을 만났다.

병장이 돌로 보았다. 《별장님을 인녕하시우?》 뜻밖에도 병장의 담배인사 또한 친척였다.